

전북미래학교 교육과정 담론 모색

도교육청, 오늘·5일 두 차례 걸쳐 특강 운영

이혜정 교육과정혁신연구소장·김성천 교수 초청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더불어 만드는 전북미래학교'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전북미래학교의 창의적 교육과정 실천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우리가 답이 있어야 할 가치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먼저, 1일 오후 3시부터 전주 더 메이호텔 미제스틱볼룸에서 열리는 특

강에는 교육과정혁신연구소 이혜정 소장이 강사로 나선다.

이 소장은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다', '대한민국의 시험', 'IB를 말한다'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한 우리나라 최고의 IB 교육 전문가다.

현재 제주·서울·충남·대구교육청 등의 IB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혁신 연구, IB교육 효과 분석 중단 연구, IB프로그램 현장 안착 지원 방안 연구 공

교육 혁신 프로젝트 등 다수의 연구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 소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IB는 시대적 역할을 기르고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국가교육과정과 학교수업 그리고 입시를 일체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IB 공교육 도입의 의미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사의 행정 업무 지원 인력 보강이나 수업시수 조정 등의 지원과 비합리적인 미래형 수능 체제 도입의 필요, 교원 양성 및 연구 시스템 개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5일 오후 3시부터는 비전대 행정기획사에서 한국교원대학교 김성천

교수가 특강을 펼친다.

이날 특강에서는 미래사회의 교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4차 산업사회를 살아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혜영 교육혁신과장은 "주제별로 각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신청접수 이틀 만에 이미 예정 인원이 마감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며 "미래사회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북미래학교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가 지난달 29일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료기기산업발전 산·학·관 '연대'

메카노바이오활성 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센터장 박찬희)가 지난달 29일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증센터는 전북대학교가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공모선정을 통해 구축했다.

이에 앞서 '중재적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를 개소한 바 있는 전북대는 이를 통해 관련 연구개발뿐 아니라 혁신의료기기 제조와 생산, 실증, 사업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또 몸 안에 매식되는 3·4등급 중재의료기기의 개발과 생산 평가를 위한 전국 최초의 전문가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전북대, 전북대병원, 안전성평가연구원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관련 기업인 (주)플라스미오, 에이블(주), (주)휴넷, (주)바이오랩, 바이오인터벤션, (주)IDM, (주)에스오이메드, (주)브이비이, (주)제이엔케이 등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권덕철 전북대 석좌교수의 인사발로 시작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찬희 센터장이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 사업 소개와 함께 고품환 전북대병원 의료기기 중재임상시험지원센터장과 보건산업진흥원 이만표 팀장의 발제가 이어졌다.

고평환 전북대병원 의료기기 중재임

상시험지원센터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은 미래 유망산업이지만 임상 검증 및 인허가 등의 의료기기 법 규제라든지, 전문가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성공적 의료기기 상품화 및 의료기관 진입에 대한 노하우와 문제해결 방법 등을 위해 기업과 기관 간 통합 네트워크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희 센터장은 "이번 기업과의 간담회는 산학관이 힘을 모아 고부가가치 의료산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중재의료기기 분야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센터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기업 지원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선행적 기초 연구를 기업들에게 제공해 관련 의료기기 분야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교육기부 일한

연극 프로그램 '전국 1위'

전북대학교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지역센터(센터장 박병기)가 제작한 연극 프로그램이 최근 열린 전국 어린이연극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고창·부안초등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돼 (사)문화예술총행(대표 양문섭)에서 만든 연극 작품이다.

이에 따르면 6학년 4명의 학생들이 대본 작성부터 무대 세팅, 소품 준비, 출연까지 직접 무대 전반을 꾸렸고,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이 학교 전교생 25명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진행된 연극 무대는 지난 11월 7일 2022년 전북어린이 연극제에 출품해 2등을 했고, 이어 11월 19일 열린 '전국어린이연극대회'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케냐·NBB홀딩스

산학협력·학생교류 인프라 구축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달 29일 주한 케냐대사관에서 산학협력과 학생교류를 위한 케냐 NBB홀딩스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군산대 이장호 총장, 주한 케냐대사 마르데 므우지, NBB홀딩스의 바치준 대표이사, 넷제로의 강영신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간담회는 올해 9월 시에라리온의 카토스 지바오 마타이 대사의 군산대 방문에 따른 후속 결과로 군산대학교와 시에라리온은 아프리카지역학 설치, 아프리카에 한국어교육과정 설치, 정부초청 GKS의국인장학생 추천, ODA를 통한 KOICA장학생 선발, 산산·조선해양 및 재생에너지분야 산학협력 위한 아프리카사업단 설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사항은 NBB 산학협력과정 개설, 군산대 행복기숙사 건립, 아프리카 현지 한국어교육센터 개소 및 운영, 군산대학교 국제사업추진단 설치 등이다.

이번 의제에 따르면 국립군산대학교와 NBB홀딩스는 금융, 항공, 무역, 에너지 관련 학과를 통해 NBB 취업연계 공유전공을 개설하고, 유학생과 유학생 가족이 거주 가능한 행복기숙사를 군산대학교 새만금캠퍼스 부지에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한국어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아프리카·터키 현대대 및 NBB홀딩스와 협력하여 아프리카에 군산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를 개소·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립군산대학교 국제사업추진단을 설치해 시에라리온, 케냐 등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교육ODA 등 협력사업을 발굴하게 된다.

/군산=김광문 기자

AI시대, 중국 인문학의 비전

중국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3일 전북대서 개최

학회 40주년 기념 4개국 150명 학자들 논문 발표

중국인문학회(회장 진명호) 추계 연합 국제학술대회가 3일 뉴질랜드 로드센터에서 열린다.

'AI 시대, 중국 인문학의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회는 '중국인문학회'와 '전북대학교 한중 상관련 연구'를 통한 지용합일 실천 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공동 주관하고,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북대 중어중문학과', '전북대 중국·아시아연구소',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호남대 공자아카데미'가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중국인문학회가 1982년 출범한지 40주년을 맞이한 해로 중국인문학의 40년간의 역사를 기념하고, 아울러 AI시대에 있어 동북아 국가들이 가진 중국 인문학의 현재 위치와 장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한국, 중국, 베트남, 일본 등 4개국 150여 명의 학자가 8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

고 토론한다. 특히 중국 현지 교수들 30여 명이 비대면으로 논문발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에서 가장 성대한 학회로, 전북지역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뜻깊은 행사다.

학회 당일 전북대 최백렬 부총장을 비롯해 중국 장승강(張承綱) 총영사 및 전회장인 김재승명예교수 등 학회 개최를 축하하는 인사로 시작해 오전에는 전남대 양희석 명예교수와 전북대 정원지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이 펼쳐진다.

한편, 중국인문학회는 1982년 출범한 이래 중국의 문화과 어학, 역사, 철학 등 중국 관련 제반 분야의 연구를 통해 중국인문학 발전에 기여하는 전국 규모의 학회로 연간 3차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중국인문학'을 발간해 한국과 중국의 인문학 연구의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인문학회 회장은 전북대 중어중문학과 진명호 교수로 임기는 내년 말까지다.

/장은성 기자

겨울철 대비 교육시설 점검

도교육청, 30일까지... 도내 977개 학교·기관 대상

공사장 등 재해취약·강당 등 다중밀집시설 안전에 중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0일까지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폭설·화재 등 겨울철 재난에 대비해 교육시설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고,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도내 977개 학교 및 기관이다.

특히 겨울철 재해취약시설 및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안전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겨울철 재해취약시설은 △구조요원위험(D·E등급) △붕괴위험(축대·옹벽·절개지) △화재위험(실형실습실·기술사·합숙소·컴퓨터) △폭설위험(PB) △아치관널 지붕구조인 강당·체육관 △공사장 등이다.

또 연수시설·강당·체육관 등 다수

의 인원이 밀집하는 장소는 안전관리 계획, 사고 예방대책 및 사고 발생시 대응방안, 이동(피난) 경로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점검자가 시정 조치하고, 경미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에는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중대한 결함이나 붕괴·전도 위험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영주 시설과장 직무대리는 "이번 교육시설 안전점검은 겨울철 재난 취약시기에 앞두고 피해 예방 및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이라며 "각 기관과 학교에서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설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지속가능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 위한 발전방안 논의

LINC 3.0 산학협력 정보담당관 성과 포럼 개최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최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2022년 LINC3.0 산학협력 정보담당관 제1차 성과 포럼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단장 주송)은 최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2022년 LINC3.0 산학협력 정보담당관 제1차 성과 포럼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고 한국공학대, 전주대 등 전국 76개 대학이 참여한 이번 성과 포럼은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학 간 산학협력 정보담당관의 구성과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산학협력 정보담당관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산학협력력 지속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로, 대학에 특화된 다양한

산학협력 관련 인적·물적 자원 및 성과 등의 관리 운영을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산학협력 추진체제다.

제부에서는 김두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가기술은행단장이 인공지능(AI) 기반의 공공 기술이전 플랫폼인 '국가기술은행 NTB'를, 김승호 계명대 교수(전국산학협력정보담당관협의체 부회장이)가 '산학협력 정보담당관의 역할 및 협의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이어 교육부 정영연 사무관 경성과 이관 교수, 충남대 김용주 교수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제부에서는 지속이 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학별 산학협력 정보담당관 운영 현황 및 사례를 발표하고, 권역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산학협력정보담당관협의회 호남 제주권 이진석 부회장(전주대 팀장)은 "이번 성과 포럼을 통해 산학협력 정보담당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앞으로 산학협력 정보담당관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가 구축되고, 공유협업에 기반한 의미있는 산학협력 성과가 창출될 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창업교육센터는 최근 창업에 관심이 있는 도내 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Attention! 창업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주대 'Attention! 창업캠프' 성료

도내 대학생 40명 대상 진행

전주대학교 창업교육센터(김기정 센터장)는 최근 창업에 관심이 있는 도내 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Attention! 창업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8개 대학 연합, 국립재활원과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는 대학 간 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창업 아이템 발굴을 위해 운영됐다.

최종 발표에서 국립재활원 자립생활 지원기술연구팀의 장성욱 박사의 특강이 펼쳐졌다.

이후 전주대 송호진, 방준혁 학생이 국립재활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전주대 LINC 3.0 창업동아리 E2팀의 팀장인 나종민 학생(산업디자인학과 1년)은 "장애라는 키워드에 대해 그저 막연하게 생각만 해왔는데, 특강을 듣고 나니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장애가 있고 같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정도의 차이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기가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됐다"며 "장애인과 노인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제품을 더 만들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